토정 이지함의 묘자리 잡기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 고만)

토정 이지함(李之函, 1517~1578)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다. 토정에 관한 소설만 네차례나 발간되어 그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있고, 신년이 되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토정비결』도 이지함이란 인물을 더욱 가깝게 느껴지게 한다. 그 뿐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토정 이지함과 관련한 전설이 남아있어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지함이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조선 주기파 성리학의 정통을 잇는 인물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가 일생동안 단지 두차례의 관직을 역임했을 뿐이고, 남긴 글도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지함은 보령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확실한 문헌은 없지만, 그의 외가가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부근에 터를 잡고 세거하던 광산김씨 집안이었고, 조선 초기에는 남자가 처가에 장가들어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그는 외가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지함 일가 묘역

이지함은 4형제 중 막내였다.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충청도 한산의 선산에 장례를 지냈는데, 그 후 한산의 묘자리는 지세가 미약하다고 해서 이장을 하게 되었다. 이때 토정 이지함이 직접 명당을 찾아 지금의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 고만에 묘역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지함은 부모님 묘소를 좋은 땅으로 옮기기 위해 전국의 명승지를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어디에도 마음에 드는 자리가 없어 허탈한 심정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고향의 오서산도 명당이 많기로 이름난 곳이었지만, 산의 지맥이 중간에 끊긴 듯 하여 선뜻 정하지를 못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검을 소를 몰며 밭을 갈던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 노인이 고집 센 소를 부리며 혼잣말로 '토정처럼 답답한 놈..' 이라고 하더니, '저 언덕만 넘어가면 될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토정은 그 노인이 가르키던 곳을 넘어가 보았다. 토정은 그제서야 무릎을 치며, 가까운 곳에 명당이 있는 것을 몰랐다며 후회하고, 그곳에 부모의 묘를 썼다고 한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주포면 고정리였다.

묘역에서 바라본 바다 전경

지도를 보면, 오서산에서 진당산과 배재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가루고개(현 보령시 오천면 갈현리)에서 급히 낮아졌다가 '고만(토정묘역)' 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토정이 산맥의 끊어짐을 걱정한 곳이 이 가루고개라 전한다.

토정이 묘자리를 정하고 보니, 그 터가 자손들을 영달하게 할 곳이지만 막내인 자신에게만은 불리한 자리였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부모님의 묘를 썼다.

그 후 묘 자리의 영향이었을까 토정의 형 이지번과 이지무의 아들인 이산해와 이산보는 고위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지만, 토정의 아들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였다.

고정리 고만은 바닷가 마을이다. 토정은 선친의 묘소에 해일 등의 피해가 생길 것을 걱정하여, 둔덕을 쌓기 시작했다.

이지함 영정

동네사람들에게 둔덕에 돌을 던지면, 아들을 낳을것이라 소문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돌을 던졌고, 돌무더기는 금새 쌓여 튼튼한 둔덕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과연 훗날 해일이 밀려왔지만, 묘역은 그대로였다.

한편, 『어우야담(於于野談)』에는 이지함이 선친의 묘 앞에 큰 바위가 있어, 풍수상 불길하자, 그것을 제거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토정은 큰 배 네척을 마련하여 백척 길이의 재목을 바위에 대고 배에 묶은 다음, 조수가 불어 바위가 수력 때문에 뜨자, 돛을 펴고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바위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한다.

고정리 고만에 있는 묘역은 봉분들이 공간적 여유가 없이 옹기종기 몰려있는 듯 보인다. 전해지는 말로는 자리가 워낙 명당이니 그렇게 하라는 선대의 유훈이 있었다고 한다.

이지함의 토정유고

지금 고만 앞바다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와 예전의 풍광을 잃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지함의 선견지명을 읽을 수 있으니, 그것은 발전소가 묘 앞의 송도와 안산을 연결해 바다를 막았다는 사실이다. 토정은 일찍이 송도와 안산 사이를 막아야 진정한 명당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한다. 〈충청학연구부〉